

글을 토해내는 집 '토문재' 창작의 산실로 자리매김

해남 땅끝에 자리한 '인송문학촌' 세미나실·북카페·인송정 등 공간 2022년부터 260명 작가 거쳐가 올해 레지던시 작가 65명 선정 박 춘장 "고향 해남 알리고 싶어"



박춘장 인송문학촌 토문재 춘장.

지역 문학촌이 작가들 창작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남 땅 끝에 자리한 인송문학촌 토문재(춘장 박병두)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260명 작가들이 거쳐 갈 만큼 창작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박병두 춘장은 30여 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 해남으로 지난 2020년 무렵 귀향했다. 2살 때 고향을 떠나 친구도 없는 볼모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내려온 것은 '문학' 때문이었다. "고향에 기여를 하고 싶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문학 관련 공간을 지으면 어떻게 싶었어. 창작을 하는 작가들의 역량에 보탬이 되고 인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문학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낙향한 그 해 송지면 송호리 땅 끝에 2300여 평 부지를 마련했다. 사재를 털어 한옥을 짓고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했다. 창작실 6실을 비롯해 세미나실, 북카페 휴게실, 정자(인송정)를 신축한 것. 박 춘장 또한 등단 40년이 된 작가다. "스물한 살 때 당시 인기 프로였던 TV문학관 작품 공모에서 입선을 했다"며 "누구보다 창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레지던시 공간을 갖춘 문학촌을 건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도 창작 레지던시 집필 공간 심사회를 열어 최근 입주 작가를 선정했다. 171명이 신청했는데 65명이 뽑혔다. 심사위원으로는 객재구·김영 시인, 송소영 여행작가, 정찬주·이기호 소설가,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시, 소설, 수필, 동화, 평론, 희곡, 영화, 다큐멘터리 등 작가 서류를 중심으로 등단 연도 및 매체, 저서, 공연, 수상, 작품 활동 등을 다각도로 고려했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문체부 산하 문예위 일부 지원을 받아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



해남 땅끝에 있는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2022년부터 레지던시 입주작가가 260명이 다녀갈 만큼 창작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인송문학촌 제공〉

박 춘장은 땅 끝에 내려오기 전 공직에 몸담고 있었다. 경찰 교육기관 교수를 하며 오랫동안 관련 강의를 했다. "저만의 위대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길 찾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인송문학촌과 토문재 명칭이 예상치 못하게 붙었다. "인송(仁松)은 방송작가인 선생님이 '어진 소나무'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주셨으며 토문재(吐文齋)는 '글을 토해내는 집'이라며 "창작을 하는 이들의 고충인 의식주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준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도 65명이라는 적잖은 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주 단위 입주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박 춘장은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개별 작가

들 사정과 연동돼 있다"며 "직장인이나 교수 등은 제각기 업무나 학사 일정 때문에 길게 입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60명이 다녀간 것은 짧은 단위 입주 프로그램의 효과"라며 "차순위 점수의 희망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문학촌을 다녀간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지난해 작고한 송기원 소설가를 비롯해 운영위원장인 황지우 시인, 신달자 시인, 나태주 시인, 문태준 시인, 임철우 소설가 등이 입주한 바 있다.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에 대한 충당도 궁금했다. 그는 "전국에 문학 레지던시 공간이 18개 있는데 문예위가 3년 간 운영 현황을 토대로 심사를 해 선정한다"며 "이번에는 6개 공간이 선정됐

며 운영비 70%를 지원한다"고 했다. 문학촌 또한 사람이 모이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사람의 삶과 내면, 서사를 다루는 문학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섬세하고 개성이 강하다. "예전에 작가로서 타 문학촌에 입주했던 경험과 지금 사재를 털어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나마 아내가 저를 이해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는 토문재가 작가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 땅끝 외에도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첫 땅이라는 뜻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 높은 문인들이 해남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제 나름의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도 보람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50~60년대 실향민 비애... 낭독극 '오발탄'

극단예린소극장 3월 1~30일 기획 송하백, 연출·낭독 윤여송

1959년 소설가 이범선이 발표한 '오발탄'은 전후 한국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작품은 사회 부조리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실향민을 조점화해 1950~60년대 시대 비극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1961년에는 유현목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됐으나 그해 5·16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상영 금지당하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



극단예린소극장 대표. 윤여송은 악기를 연주하며 작품을 낭독하는 모습이다.

극단예린소극장(대표 윤여송)이 1인 낭독극 '오발탄'을 오는 3월 1일~30일(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3시) 예린소극장에서 펼친다. 기획은 송하백이 맡았으며 진행에 윤주원, 구성·연출 및 낭독은 윤여송이 진행할 예정이다. 작 중 철호는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간다. 월남 가족의 가장으로 판자집에서 생활하며 전쟁 충격으로 정신이상인 어머니, 권총 강도가 된 동생 영호, 가난을 벗어나려 양공주가 된 동생 명숙 등 혈육이 있지만 부담감이 크다. 이 같은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철호는 양심을 좇을지, 현실과 타협할지 시련을 받는다. 한편 예린소극장은 6월 중 '아름다웠던 시간', 8월 내레이션극 '메밀꽃 필 무렵', 10월 '광주 소극장 축제' 참여, 12월 '수염 난 여자를 만나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작품발

표를 하는 '청소년 연극마당', 시와 소설을 낭독하는 '낭송·낭독마당', 누구나 연극에 동참하는 '시민연극마당'을 비롯해(각각 회비 있음) 신입 단원도 모집 중이다. 낭독극 또한 계속되는데, 향후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근현대 단편 소설을 낭독극화할 계획이다. 윤여송 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사회는 작품 속 '철호네'가 살아가던 그곳과 별반 다를 것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정의'의 문제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람료 1만 원, 유선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ACC 시민오케스트라' 26일까지 신규단원 모집

올해 10회째를 맞는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민 참여 공연 프로그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운영하며, 지난해 2회 공연에서 150명 단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올해도 시민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오는 26일까지이며 신규 단원 모집은 50명. 올해 시민오케스트라도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신규 단원은 서류 심사와 실기 테스트를 거쳐 새로 뽑을 예정이다. 대상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13개 분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가 가

능해야 하며 연습과 공연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단원들은 3월부터 10월까지(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를 거쳐 오는 10월 ACC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생활예술 음악인들이 ACC 시민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 경험을 쌓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ACC재단은 향후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도사진 가치 조명 '현장의 눈빛' 전

'2025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26일부터 광주신세계갤러리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다. 뜨거운 열정이 깃든 기록이자, 시대를 증언하는 목소리이다. 때로는 한 줄 기사보다 더 강렬한 진실을 전하기도 한다. 보도사진의 가치를 조명하는 2025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현장의 눈빛' 전이 열린다. 오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진수)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취재한 주요 사건·사고, 미담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에 앞서 10시 40분 반도네오니스트 김국주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의 감격적인 우승 순간을 비롯해 12·3 비상 계엄 이후 연이은 탄핵 촉구 집회,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안타까운 모습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사진기자 앵글을 통해 생생히 되살아난다. 아울러 전시장에서는 '제20회 박경완 기자

상' 수상 영예를 안은 뉴시스 이영주 기자의 '제주항공 참사 무안국제공항 주변 철새떼'도 볼 수 있다. 박경완 기자의 자상은 1993년 아시아나 보잉 737 항공기 추락 사고를 취재한 뒤 사하던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경완 사진기자의 기자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일간지 및 뉴스통신사 등 11개 언론사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이후 전남도청 선선도홀에서 순회 전시로 이어진다. 전시 작품들은 개막 당일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김진수 회장은 "보도사



제7차 광주시민총회(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진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들이 지나온 길의 '흔적'이라며 "전시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역사적 순간과 감동을 시민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섬세한 터치와 깊이 있는 해석 '얀킴 트리오 Piano Trio Works'

3월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피아니스트 안 김은 깊이 있는 해석,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터치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다. 작년 정규 1집 'Night Chaser'를 발매했으며 ACC,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무대에서 지역 관객과 소통해왔다. 작년 월간 재즈피플 '올해의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재즈브릿지컴퍼니가 '얀킴 트리오 Piano Trio Works'를 오는 3월 8일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정규 1집 수록곡인 4편의 자작곡과 6편의 재즈 스탠다드로 채워진다. 표제곡 'Night Chaser'를 비롯해 '누가 신성 쓰나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등 감미로운 곡이 울려 퍼진다. 이외 '소셜 콜', '하루의 변화', '블루스 포 비

프'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과를 졸업하고 EBS '재즈의 비밀' 호스트 밴드로 활동한 베이스리스트 김대호, 뉴욕주립대 퍼체이스대학을 졸업(석사)한 드러머 김건영이 무대를 함께 채운다. 한편 안 김은 호원대 실용음악학부를 졸업한 뒤 올해 한양대 재즈연주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태화강 국제재즈페스티벌과 해운대 재즈페스티벌, 잿고개재즈페스티벌 등에서 연주를 펼쳐왔다. 재즈브릿지컴퍼니 김현중 PD는 "재즈 본연의 즉흥성과 스윙이 살아 숨 쉬는 안 김의 선율은 드럼, 베이스와 조화를 이뤄 '빛'을 발할 것이다"며 "세련된 앙상블과 감각적인 인터플레이(협주)가 관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각인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3만5000원, 네이버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니스트 안 김 <재즈브릿지컴퍼니 제공>